

벤처기업기술사업화 강화

개방형 혁신(Open Innovation)을 통한 정부출연 연구원 등 공공(연) 연구성과의 사업화 성공률을 높이기 위해 벤처기업에게 공공기술을 활용한 신규 아이템 발굴과 이전받은 기술에 대한 사업화 전략기획 지원을 통해 벤처생태계 조성 및 연구성과의 사업화 성공률을 높이는 '기술사업화 기획사업'을 지식경제부가 강화하고 있다.

오픈 이노베이션이란 기술개발과 사업화 과정에서 다양한 외부기술자원 활용 및 외부기관과 협력을 통해 R&D의 효율성과 사업화 성과를 극대화하는 전략이다.

대덕연구개발 특구 육성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동 사업은 '신규아이템 발굴' 부문과 '이전기술 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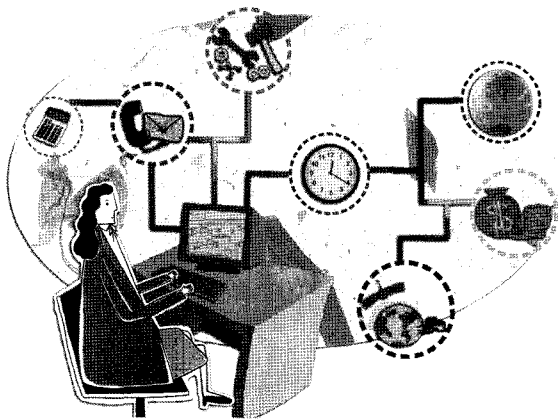
업화전략' 부문으로 나누어 재작년부터 특구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18개 기업에 12억원을 지원하였으며, 특히 올해부터는 특구내 공공기술이 타지역으로도 사업화 확산이 될 수 있도록 전국의 벤처기업 또는 신규사업을 추진하는 중소기업 등을 대상으로 확대하고 있다

신규아이템 발굴이란 사업의 다각화를 도모하는 기업에게 내외부 환경분석을 통해 유망산업분야를 발굴하고 발굴된 산업내에서 공공기술을 활용하여 기술사업화 지원이다.

이전기술 사업화란 공공기술을 이전받았거나, 이전에정인 기업에게 이전기술에 대한 분석, 사업성 검토를 통해 사업화를 위한 추진전략 수립 지원이다.

사업추진 전담기관인 대덕연구개발특구지원본부는 수행기관을 신규아이템 부문은 KISTI(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사업화 부문은 비즈니스전략연구소 등 7개 기술사업화전문기관을 컨소시엄으로 구성하여 컨설팅을 실시할 예정이며, 사업 지원기업 선정을 위해 공고를 실시하고 있다.

지원규모는 1개기업당 20%이하의 기업매칭을 통해 신규아이템발굴 부문에 1억원, 이전기술사업화 부문에 4천만원씩 총 7개사에 정부보조금을 지원할 예정에 있으며, 1개기업당 1~2개 컨설팅 전문기관이 맡게 될 것이다. 지원기업 7개사는 신규아이템발굴 2개사, 이전기술 사업화 5개사이다.



지난해('09년) 사업성과를 살펴보면, 지원기업의 컨설팅 만족도에 있어 기업당 5건이상 발굴한 '신규 아이템 발굴' 부문은 평균 95.8점을 '이전기술 사업화' 부문은 평균 91.4점을 기록하는 등 매우 높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08년에 지원받은 케이맥(주)는 POC용 바이오센서 등 5건의 차세대 아이템을 발굴하여 기존 아이템 대비 35%이상 매출이 증가하였으며,

특히, 반도체 칩 불량검사기업인 (주)인텍플러스는 '09년에 발굴한 LED 패키지 외관검사장비 부분에서 100억원의 신규 매출에 이어 올해에는 200억원 이상의 추가 매출을 기대하고 있어 기존보다 60%이상의 매출증가 예상된다.

'09년에 '이전기술 사업화 전략기획'을 통해 사업화 전략을 수립한 (주)엠이엘 및 BNF테크놀로지(주)의 경우 올해 매출액을 전년대비 2배이상으로 전망하고 있다

지정부 박종구 특구기획단장은 "올해 3년째를 맞는 '기술사업화 기획사업'이 신성장 동력을 찾고 있는 중소기업과 기술사업화 컨설팅 전문기관을 연결시켜주는 성공적인 지원 프로그램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여 기업의 먹거리 사업을 찾는데 더욱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기술사업화 기획사업의 개요를 보면, 신규 사업모델 발굴 또는 이전기술의 사업화에 필요한 전략 수립 등을 위한 컨설팅, 피컨설팅 기관에 대한 지원을 통해 대덕 특구내 공공기술의 사업화를 추진하는 것이 목적이다.

2010년 사업내용으로는 지원규모가 4억원이고, 지원대상은 민간사업화 전문회사 및 신규 사업을 추진하는 중소,중견기업 등이다. 사업기간은 3월부터 12월까지 10개월이다. 지원내용은 신규 아이템 개발에서 사업의 다각화를 도모하는 기업에게 내외부 환경분석을 통해 유망 산업분야를 발굴하고 발굴된 산

구분	'08년	'09년	'10년	합계
지원기업	6개	12개	7개(예정)	25개
수행기관	3개	6개	8개	17개
지원금액	400백만원	800백만원	400백만원	1,600백만원

업내에서 공공기술을 활용하여 기술사업화를 지원하는 것이다.

이전기술 사업화는 공공기술을 이전 받았거나, 이전 예정인 기업에게 이전기술에 대한 분석, 사업성 검토를 통해 사업화를 위한 추진전략을 수립 지원하는 것이다.

연도별 지원현황을 보면, 신규아이템 발굴 및 이전기술 사업화 전략수립이 필요한 기업 및 이를 수행하는 컨설팅 기관에 대한 지원인 것이다. 2008년에 지원기업이 6개, 2009년이 12개 금년이 7개로 합계가 25개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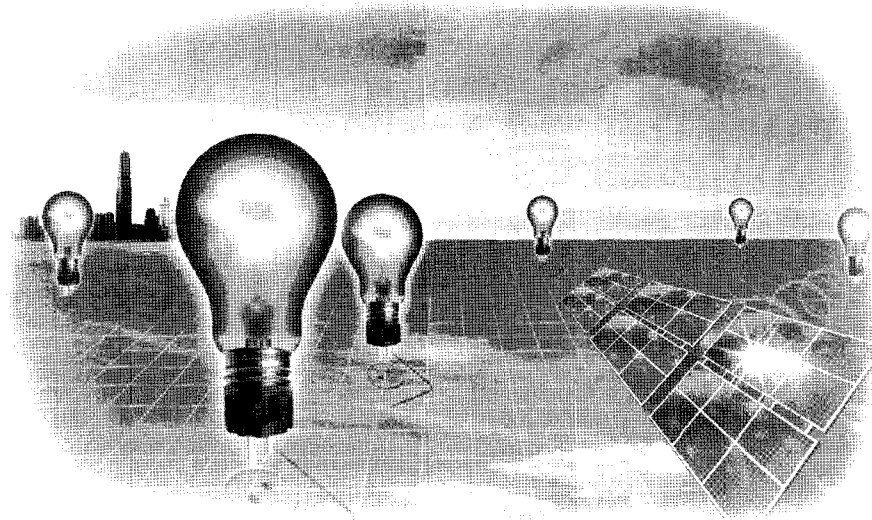
[대학 IT연구센터의 신규과제 및 수행대학]

분야	과제명	수행대학
BcN	스마트 그리드 보안 연구	고려대
BcN	소셜 미디어 클라우드 연구	건국대
반도체	아날로그 IT 설계기술 연구	서강대
디지털TV/방송	차세대 DTV 방송기술 연구	연세대

한편, 지식경제부는 IT인력양성사업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대학 IT연구센터」,「IT융합 고급인력과정」,「서울어코드 확산」,「글로벌 IT인재 활용」등 4개 사업의 신규과제 수행자로 대학 24곳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대학 IT연구센터 사업은 고려대, 건국대, 서강대, 연세대 등 4곳이 선정되었으며, 주력IT 분야의 고급인재 양성을 위해 각 대학에 향후 4년간 매년 8억원이 지원된다.

IT융합 고급인력과정 사업은 IT융합 분야의 고급인재를 양성하는 사업으로 강원대, 경원대, 세종대,



숭실대 등 4곳이 선정되어, 각 대학에 향후 4년간 매년 10억원이 지원된다. 4곳은 강원대(IT+조명), 경원대(IT+의료), 세종대(IT+건설), 숭실대(IT+기계)이다. 서울어코드 확산 사업은 경기대, 세종대, 한국항공대 등 7곳이 선정되었으며, 향후 2~3년간 매년 1억원이 지원되어 대학이 컴퓨터·정보기술 공학교육인증을 취득하는 것을 돕게 된다. 7곳은 경기대, 세종대, 한국항공대, 한동대, 홍익대, 한국산업기술대, 원광대이다.

글로벌 IT인재 활용 사업은 해외 우수인재를 유치하여 국내 유학 및 산업체 연수를 지원하는 것으로, 경희대, 배재대, 성균관대 등 9개 선정 대학은 해당 외국인 유학생의 석사과정 학비를 보조 받는다. 9곳은 경희대, 배재대, 성균관대, 아주대, 울산대, 건국대, 서울대, 조선대, 인하대이다.

금년 처음 도입된「산학협력 가점제」가 그간 산학협력 걸림돌로 지적되어 온, 대학의 SCI 중심 교수평가제도를 개선하는데 큰 힘을 발휘했다. 산학협력 가점제는 대학이 교수의 産學협력활동 실적(특히, 기술료 등)을 우대하는 방향으로 교수평가제도를 개선할 경우에 최대 6점의 가점 부여하는 것이다.

대학 IT연구센터는 신청대학 8곳 중에 5곳, IT융합 고급인력과정은 신청대학 18곳 중에 15곳 대학이

산학협력 가점을 받으려고 교수평가제도 개선안을 제시했다. 서울 유수의 대학도 학칙 개정 등 교수평가제도 개선에 적극 동참한 것으로 나타났다. 산학협력 가점제가 효과를 보임에 따라, 동 가점제를 한층 보완해 他사업으로도 확대할 계획이다.

최경환 지식경제부장은 지난 5.10일 IT인력양성 정책 간담회에서 지경부는 사업자 선정시 SCI 등 논문보다는 산학협력을 비중 있게 평가할 예정이라고 이미 밝힌 바 있다.

대학IT연구센터 사업은 대학에 결집된 인적자원을 적극 활용하여 IT분야의 핵심기술 문제 해결 능력과 프로젝트 수행 능력이 우수한 고급 연구인력을 양성하는 것이다. 지원 대상은 대학IT연구센터이다.

지원분야는 반도체, 디스플레이, 휴대폰, 네트워크, 정보가전, LED, 광, 디지털방송 등 7대 주력IT 분야이다. 지원기간은 최장 4년이고 예산은 26.3억원이다. IT융합 고급 인력과정 사업은 IT융합분야 연구프로젝트를 기업과 대학이 공동 수행함으로써 IT융합 분야의 석박사급 고급인력 양성과 공급이 목적이다.

사업내용은 석박사 과정 대학원생이고 지원분야는 10대 IT융합 산업분야중 IT+의료, 기계, 건설, 조명이다. 지원기간은 최장 4년이고 예산은 24.4억원이다.